

너도나도 바이오... 화순 백신산업 위상 흔들

21~22일 국제 백신 포럼...경북 안동서도 똑같은 포럼
오송·송도·성남 등도 뛰어들어...경쟁력 확보 대책 절실

화순이 자랑하던 백신 산업의 선도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관련 산업 육성에 뛰어들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21~22일 화순군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에서 2017 화순 국제 백신 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질병 퇴치와 새로운 백신'을 주제로 ▲백신 그리고 사회와 산업 ▲백신 연구의 최근 연구동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 개발 방법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낸시 설리반 미국 국립 보건원 백신 연구소 위원장 등 국내외 석학 9명이 연사로 나서고, 대한백신학회 추계학술대회도 함께 열린다. 화순군은 포럼 기간 중 자곡경부암 면역항암제 생산업체, 결핵백신생산업체, 백신 완제품약품 제조업체 등과 협약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슷한 시기 경상북도 안동에서도 같은 주제의 포럼이 열린다. 안동시는 경상북도

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2017 국제 백신 산업 포럼'을 개최한다. 화순과 안동이 같은 시기, 같은 성격의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백신 산업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자치단체의 경쟁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순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화순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2004년부터 풍산읍 일원에 94만여㎡ 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 지난 2009년 완료했고 2012년 SK케미칼 백신 공장,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소, 국제백신연구소 분원 등이 들어서며 관련 인프라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화순·안동에 사이 좋게 백신 생산 대형기업을 건립키로하며 경

쟁 모드를 형성중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1865억원을 들여 화순에는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안동에는 동물 세포 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화순은 미생물, 안동은 동물 세포 관련 백신으로 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충북 오송, 인천 송도, 경기 성남(판교) 등의 바이오·헬스 관련 기관·시설



지난 2009년 건립된 녹십자 화순공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도 지리적 이점 등을 내세워 백신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화순의 백신 산업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에 가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남도 관계자는 "화순, 나주, 장흥을 잇는 생물 의학 산업 벨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백신 산업 선도 지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군 소속 변호사 2명 기초단체로서는 이례적

일반임기직 1명 추가채용

담양군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 1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기초자치단체가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은 최근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박상범 변호사를 채용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법률 업무를 맡게 된다. 박 변호사는 3년까지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 담양군은 앞서 박경란 변호사를 담

양군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채용, 지난해 4월부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변호사 1명을 채용, 법무 업무를 맡고 있는 데 비해 담양군은 변호사 2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담양군 관계자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지역 조손 가정 및 저소득층을 위한 '엄마나 맛, 사랑의 송편'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여성단체협의회원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송편을 빚어 조손 가정 150세대에 전달하고 정을 나누며 건강을 기원했다.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담양군 공예명인' 신청하세요

내달 11일까지 접수

담양군은 '2017년 담양군 공예명인'을 찾는다. 지역 공예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예 기술을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담양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1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읍·면장 또는 담양군공예인협회이사장 추천을 받아 다음달 11일까지 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전문성 보유정도, 입상 및 전시 활동, 공예문화 발전공헌도, 기술숙련도, 공방시설, 작품성과 상업성 등에 대한 1·2차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공예명인 선정제도에 따라 목질, 섬유, 도자기 부문 8명의 명인을 선정했다"면서 "지역 공예기술 발전과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예 명인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가을 편백숲서 음악회·독서...몸도 마음도 힐링하세요

장성군 16일부터 이틀간 축령산서 편백 산소축제

도심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자연 속에서 호젓하게 여유를 즐기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업그레이드'할 기회로 삼을만한 행사가 열린다. 장성군이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축령산 편백나무 조림지 일대에서 여는 '축령산 편백 산소축제'는 바스락거리는 숲길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다. 올해로 10회째인 축제는 '산소 품은 축령산! 편백향과 만나다'를 주제로 숲이 주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편백나무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한 게 특징이다. 우선, '편백 행운목 달기'를 비롯, '편백 향 목걸이·팔찌', '편백 미스트', '편백 베개·자켓', '편백 비누', '편백 벌레퇴치제 만들기', '편백 시계', '편백 수분 크림' 등 가족과 연인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숲속 음악회는 편백 산소축제의 매력

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6~17일에는 인기가수와 오카리나, 색소폰 동호회의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숲에서 호젓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책 400권을 비치한 '숲속 도서관'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할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이외 농·특산물 판매 부스, 야외 카페, 숲속 슈퍼마켓, 숲속 식당·주막도 열려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축령산의 멋진 편백 나무를 주제로 한 축제가 자연 자원을 활용한 지역 대표적 행사로 성장했다"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축령산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령산은 지난해 12월 '편백힐링 특구'로 지정됐으며 장성군은 축령산 일대에 5년간 150억원을 들여 편백 관련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축령산 편백 산소축제 때 펼쳐진 스위스 전통 악기인 알펜호른 공연. <장성군 제공>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히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나주, ㅅ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주인직매 010-3605-5000